

# 고창모양성제, 성문을 열다

### 9일까지 고창읍성 일원서... 짚신·미투리 만들기·서예체험 등

'역사는 미래다'를 주제로 고창읍성 일원에서 5일부터 오는 9일까지 열리는 '제43회 고창모양성제'가 화려하게 개막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유망축제'인 고창모양성제는 역사와 전통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체험형 축제로 다양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과 문화콘텐츠로 사랑받고 있다.

축제 첫날인 5일에는 '고창모양성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퍼레이드'가 마련돼 전통복장을 갖춘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해 조선시대 원님 부임행렬을 재현하며 군악대의 취타대, 농악대와 함께 고창실내체육관부터 군청-터미널-고창읍성까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불거리를 제공했다.

이어 조선 단종(1453년)때 전라도 19개 군·현 주민들이 참여해 축성한 고창읍성의 유비무환 축성정신을 기리고 지역 간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며 송하진 도지사, 김생기 정읍시장, 이건설 김제시장, 이항로 진안군수, 황소주 순창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등 현존하는 자치단체의 단체장

이 참여한 가운데 '축성참여 고을기 올림 행사'가 개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개막퍼포먼스에서는 봉화를 점화하고 장운정, 박현빈 등 인기가수의 공연이 마련돼 흥겨운 어울 한마당이 마련됐다.

모양성제가 열리는 고창읍성 일원은 초가부스로 행사장이 조성돼 있으며 부스 안에서는 짚신·미투리 만들기, 서예체험, 전통 놀이기구 만들기와 활쏘기와 같은 전통놀이체험 등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색다른 전통문화체험으로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조선시대에 읍성을 지키던 군사들의 교대의식인 수문장교대식과 시간을 알리던 경전시보의식과 고창읍성 내에서 열리는 다도체험, 육사체험, 전통혼례체험과 전통무예시범 등은 전통과역사문화축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6일에는 조선시대 원님이 취타대를 앞세우고 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부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원님부임행사'와 안숙선·김일구·정

수인 명창 등 국악인들이 흥겨운 무대를 선사하는 'KBS국악한마당' 공연이 펼쳐지며 추억과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7080페스티벌'도 진행된다.

7일에는 고창모양성제의 가장 큰 볼거리 중 하나인 답성놀이와 강강술래가 진행되어 한복을 입고 성곽을 돌면서 무병장수와 소원을 빌고 수백명의 군민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져 강강술래를 하며 화합을 기원하는 한마당이 펼쳐진다.

8일에는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모양성제와 함께하는 영어체험행사'와 '청소년 락페스티벌', '관광객과 함께하는 야간 강강술래 체험'을 비롯해 마당극 '시집가는 날'을 각색한 마당놀이극 '모양성 가는 길' 공연이 펼쳐진다.

9일에는 고창군민 두쌍이 전통혼례식을 통해 하객과 관광객의 축하를 받으며 백년가약을 맺는 '전통혼례식'과 '천하태권 명인전', '태권도 시범공연' 등 마지막까지 볼거리 즐길거리가 풍성한 축제로 꾸며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식 야구장이 없는 순창군에서 전국유소년 야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전국적 이목 집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 순창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 '성공적' 마쳐

### 30개팀 참가 800여명의 방문객... 대규모 체육 행사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

정식 야구장이 없는 순창군에서 전국유소년 야구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전국적 이목 집중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순창군은 지난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순창군생활체육운동장과 공설운동장, 유등면 삼진강체육공원에서 전국유소년 야구팀 30개팀이 참가한 2016년 순창군수배 전국유소년 야구대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참가선수단만 450여명으로 동반한 가족까지 포함하면 800여명의 방문객이 순창을 방문했을 것으로 군측은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후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치른 대규모 체육 행사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줬다.

통상 야구는 리그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선수단과 응원단이 순창에서 머물러 소비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실제 이번 대회는 새싹리그와 꿈나무리그,

유소년 리그 3개 리그로 각 부의 조별 리그전을 거쳐 본선전으로 치러졌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역팀들이 대거 참석했다. 경기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지역 식당, 여관 등은 모처럼 활기가 돌았으며 특히 면단위 펜션과 수련장까지 숙박범위를 확대해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효과가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이번 유소년야구대회가 눈길을 끄는 이유는 야구대회를 개최하기에는 부족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순창군에서는 그동안 활용도가 낮았던 유등삼진강체육공원에 안전장막과 베이스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정비해 임시 야구장 2개를 개설하고 공설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변모시켜 유소년야구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대회 유치에 적극

나섰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대한유소년 야구협회 사전 답사결과 충분히 야구대회를 치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순창에서 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것. 따옴으로 만든 결실이다. 또 순창군야구협회(회장 김화곤)는 구장 주변에 선수단 환영 현수막을 걸고 임원진과 함께 매일 경기장을 방문해 선수들을 응원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 도움도 성공적 경기에 한 몫을 했다.

황소주 군수는 "이번 대회가 처음이라 기대만 격정만 이었는데 열악한 조건에도 직원들이 준비를 열심히 해 성공적 대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스포츠 대회 유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 새싹리그는 마산합포구팀이, 꿈나무 리그에서는 성북구팀이, 유소년 리그에서는 김포시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읍·면 풍물경연대회 성료

### 최우수상 강진면 등

풍물의 맥을 잇고 전통문화 보전을 위한 '제26회 임실군 읍·면 풍물경연대회'가 오는 6일 개최되는 '제2회 임실N치즈축제'의 개막을 알리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임실문화원(원장 최성미) 주관으로 임실종합복지회 분수대 광장에서 지

한마당 잔치가 되었다.

행사에 참석한 심민 군수는 "오늘 대회를 통해 점점 잊혀져가는 풍물을 계승 발전시키고 생활의 활력소로 자리 잡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 결과 대상에 삼계면, 최우수상 강진면, 우수상 덕치면, 장려상 임실읍, 운암면, 청운면, 덕을 이어가고 선조들의 열과 혼이 담긴 고유한 전통을 경연대회를 통해 계승·발전시키며 지역민이 화합하는

행사에 참석한 심민 군수는 "오늘 대회를 통해 점점 잊혀져가는 풍물을 계승 발전시키고 생활의 활력소로 자리 잡아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연대회 결과 대상에 삼계면, 최우수상 강진면, 우수상 덕치면, 장려상 임실읍, 운암면, 청운면, 덕을 이어가고 선조들의 열과 혼이 담긴 고유한 전통을 경연대회를 통해 계승·발전시키며 지역민이 화합하는

/임실=진홍영 기자



## 임실군, 소충제례행사 개최

### 향일운동 펼치다 순국한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 추모

임실군과 소충제전위원회(위원장 마형수)는 5일 '제60회 소충제례행사'를 성수면 소재 소충사에서 개최했다.

심민 군수를 비롯한 문영두 군의회의장, 최기용 전주동부보훈지청장, 기관단체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례행사는 향일운동을 펼치다 순국한 정재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를 추모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이석용 의병장의 후손인 이명근 유족대표 등 광복회 회원전원이 참석해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선열들의 정신을 기렸으며, 관내 초·중·고 학생 100여명이 초청돼 헌화에 참여했다.

행사에 참석한 성수면 주민은

"제례의식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한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본받고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다"며, "충효의 고장에서 살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지역에서 배출된 호국 영웅들의 뜻을 계승 발전시키는 다양한 시책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충제례행사'는 지난 1907년 일제에 의해 고종이 강제로 양위되고 군대가 해산하자 임실 등지에서 의병을 일으켜 한일 투쟁하다 순국한 이석용 의병장과 28의사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소충제전위원회 주관으로 매년 10월 개최되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새로운 소득작물 약초 육성

### 농민 40여명 대상 전문가 육성

순창군이 새로운 소득작물로 약초에 주목하고 약초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농민 40여명을 대상으로 약초에 대한 현장교육을 진행해 참여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이번 교육은 급변하는 농업환경에서 신 소득 작물로 부상하고 있는 약초에 대한 기본적 지식 습득은 물론 현장방문을 통해 향후 농업인들이 접목 가능성을 직접 판단해 보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군은 이미 지난 9월 30일 70여명을 대상으로 약초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이론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농업기술센터 다목적 강당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 정충화 연구원이 나서 약용식물의 분류 및

산업화 현황, 꽃, 잎, 뿌리를 이용한 약용식물 현황 특용작물의 분류 등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해 농민들이 약용식물에 대한 개념과 기본적 생육과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지난 5일 충북 음성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진행된 현장교육은 이론교육의 후속교육이다. 현장교육에서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다양한 약용식물을 직접 살펴보고 또 전문가들의 설명을 들으며 농민들이 재배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됐다.

한편 순창군은 다양한 약용작물 통한 의농업을 군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의농업전시관 외 관광사를 완료하고 내부 전시공간 준비에 들어가고 있는 등 힐링산업과 농업을 접목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농협남원지부, 명예이장 위촉

남원시와 농협남원지부는 5일 남원시청 대강당에서 침체된 농촌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운동인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내 기관·단체장에게 명예이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운동은 기관장·기업CEO 등을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으로 위촉하고, 소속 임직원을 명예주인으로 참여시키며,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마을에 다시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한 운동이다.

이날 이환주 남원시장은 조내수 농협남원지부 지부장을 이양면 하성마을, 이세철 남원세무서 서장을 사메

면 노봉마을, 박기열 남원농협 조합장을 보잘면 사촌마을, 임승규 춘향농협 조합장을 대강면 편동마을, 서영교 운봉농협 조합장을 운봉을 비전마을, 최희철 지리산농협 조합장을 인월면 취암마을, 강병무 남원축협 조합장을 보정면 단산마을, 방광원 남원원협 조합장을 주성면 재전마을의 명예이장으로 각각 위촉했다.

조내수 지부장은 "기관장·기업CEO 등이 농촌마을의 명예이장이 되어 마을 속인사업을 지원하고, 상호교감과 인정을 나누며,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도농화합의 새로운 모델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임실군, 생활법률 시민로스코 운영

임실군은 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생활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시민로스코'를 운영한다.

오수면 소재 군립도서관에서 진행되는 '시민로스코'는 법무부와 대한변협법을 구조재단이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선정돼 현직 변호사들이 참여하여 생활법률 상식을 제공하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개인간 민사분쟁에 현명히 대처하는 법', '부동산 거래할 때 꼭 챙겨야 할 사항', '의료사고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 '돈 없어도 소송 할 수 있는 법률복지제도' 등 총 4개 주제로 4회에 걸쳐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알아두면 힘이 되는 생활법률 강좌를 통해 민사분쟁, 부동산 거래, 의료소송 등 생활에 밀접한 법적 지식을 습득하고 법과 친숙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로스코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나 자세한 문의사항은 임실군립도서관(☎063-640-2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고창군, 자연아 놀자 생태체험마당

고창군(군수 박우정)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오는 8일 지역 내 육아가정을 위한 '자연아 놀자! 생태체험마당'을 개최한다.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어린이생태놀이터에서 열리는 이번 생태체험마당은 지역 영유아들에게 즐거운 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날 '딱박이 목공체험', '신비한 곤충의 눈', '해바라기 밧줄 놀이터', '미야방자 등록 안전드림', '팝콘만들기' 등 영유아와 가족들이 누구나 참여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오감을 만족시키고 자연과 친숙해 지는 기회가 되며 자연스럽게 친환경 인식을 높여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를 희망하는 영유아 가정은 8일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사이 생태놀이터에 현장접수 후 참여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hildcare.gochang.go.kr) 또는 전화(063-564-086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부모와 아이가 자연생태를 마음껏 느끼면서 서로 더욱 친밀함을 쌓는 즐거운 체험의 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남원시의회, 상호발전 소통시간 가져

남원시의회(의장 이석보)는 5일 2016년 하반기 의원 연찬회 일정 중 지리산권 중심도시인 남원시를 방문한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 일행과 시청 2층 회의실에서 상호 발전과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주정 의장을 비롯한 25명의 동대문구의회 일행은 2016년도 하반기 의원 연찬회 2박 3일 일정 중 2일째에 남원 방문을 계획하여 남원의 대표 음식인 추어탕을 시작으로 하여 남원시의회와의 간담, 국악의 성지 및 전통주 제조공정 시설 견학 및 관광자원 관광을 통해 남원의 맛, 멋, 소리에 흠뻑 도취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석보 의장은 "찾아가는 의회, 발로 뛰는 의원, 신뢰받는 의정을 슬로건으로 다방면에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동대문구의회 주정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남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번 기회로 양 의회간에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우정을 쌓으면서 상생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남원=유영철 기자